

제 19 장 서론 : 예수는 실제로 살았다

By 길한종

1. 주제

예수는 당시에 사람들이 볼수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다. (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살아간 인간)

2. 문제점

기독교의 구전기 때에 예수에 관한 해석 => 신화적인 해석

3. 논점

- 종교제도의 언어와 전통속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새롭게 소개하기 위하여
- 예수가 신화가 아닌 역사의 인물이며 그가 내놓았던 막강한 에너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;

a) 예수의 출신성분

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(역사적 인물) vs. 베들레헴 출신(신화적 인물)

b) 세례요한의 제자

세례요한에 대한 예수의 우월성 증명 => 노력(초기 기독교인)

세례요한 : 1) 선구자 / 엘리야

2) 준비하는 이 => 능력자가 내 뒤에 오심

3) 물로 세례 주는 이 vs.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

4) 출생전 요한의 태아가 예수의 태아의 우월성 인정 (눅 1:41)

예수가 세례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할 수 밖에 없었고, 또한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의 우월성을 제시하게 만들어야 했다.

c) 예수의 십자가 처형

십자가 처형 => 승리로 만드는 작업 => 히브리성서와 맞추기 => 설명해야 => 방어해야 => 실제(역사적 사실)

d) 바울이 접촉하였던 예수를 아는 사람들

베드로 /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만남 (십자가 처형 후 4~9 년 사이의 일) => 신화는 짧은 시간에 창작되지 않음

4. 평가

- 설명해야만 하고 방어해야만 하는 실체가 없이는 변증적 설명이 발전하지 못함 (pg. 301)
- 예수의 진정한 인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(pg. 303)

5. 생각해 보기

- 예수의 인간성(humanity)이 우리의 출발점(when we begin)이라고 한 저자의 의미는?
-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차이를 줄까?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일까?